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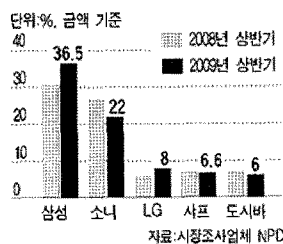
공부하는 일본

일본지적재산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는 일본 경제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접해왔다. '버블경제', '잃어버린 10년', '끝없는 추락',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은 못 나라' 등등.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세계 2위 경제대국 방어', '부활하는 일본경제'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침체를 생각하면, 최근에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라거나,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로부터 중국의 급성장이나 미국의 수입다변화, 경제권역별 경제공동체의 수립, FTA체결 등 국가 간 1:1 경제협약 체결, 두바이 사태에 뒤이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 어떤 사안도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더욱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수

미국 LCD TV 시장 점유율



2005년 세계 TV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판매금액 ※ 판매수량

순위	회사	판매금액	판매수량	순위	회사	판매금액	판매수량
1	삼성전자	8.2	0.9	1	LG전자	7.5	9.8
2	파나소닉	6.8	9.7	2	삼성전자	7.2	9.0
3	소니	11.6	8.8	3	TTE	8.1	7.5
4	LG전자	6.6	8.3	4	필립스	6.1	6.8
5	필립스	7.6	8.1	5	소니	6.6	6.7

자료: 시장조사업체 NPD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나서면서, 일본의 발목잡기 수준이 아니라 어깨를 견주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심지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는 게임분야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일본이 겪는 위기감은 자못 실존적인 측면이 있다. 전자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자부심이 상처를 입을 수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Japan

일본의 특허공세와 그 바탕

2000년대 중반, 일본은 저우 경제침체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애쓰며 막 몸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특허공세였다. 2004년 한 해에만 해도,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파상적인 특허침해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서, LG전자는 PDP 대일 무역 진출의 길이 막혔고, 도시바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후지쯔는 삼성SDI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물론,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특허분쟁으로 도발한 데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많은 이들이 분석하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일본의 핵심 산업과 상당부분 교차하고 있다는 점¹⁾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통해 전략변경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이 경제침체의 핵심전략으로 최종 소비자 지향의 제품생산보다는 원자력, 철강, 조선, 반도체, 가스, 자동차 등 인프라산업으로 투자방향을 선회하였고, 일본의 기술전통이 있는 전기·전자분야에서는 대형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과 마케팅만이 아니라, 기술획득전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술획득전략과 관련해서, 일본의 특허공세 강화라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특허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해외의 경쟁기업에 대해 기술침해를 주장하고, 특허분쟁에 돌입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들이 기업의 경영전략의 수립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일까? 이점에 있어서, 일본이 이처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

다시돌리다

2008년 06월 02일 월요일 006면

이번엔 TV와 게임기 묶는 '게임 마케팅'으로

삼성-소니, 북미시장 '혈투'

삼성-MS와 소니 뿐만 아니라

세계 LCD TV 시장의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이번에는 TV와 게임기 묶는 패키지로 묶는 게임 마케팅으로 대결하고 있다. 세계 최대 TV 시장인 미국에서 삼성은 MS와 손잡고 대결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유통점인 베스트바이는 삼성전자의 LCD TV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 엑스박스360을 패키지로 묶어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 소니의 LCD TV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를 패키지로 묶어 영가에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패키지는 120Hz 영상 구현 기술을 적용한 101cm(40인치) 풀HD LCD TV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360, 게임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묶어 820달러를 할인한 18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소니 패키지의 경우 117cm(46인치) 풀HD LCD TV와 PS3 40GB버전을 패키지로 600달러를 할인한 3399달러에 선보이고 있다.

이 패키지는 게임기와 패키지, 휴

지터 등을 묶어 선보이면서 사실상 TV 가격에 나머지를 덮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분기 북미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한 바 있어 두 회사는 경쟁적으로 이같은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니가 자체 TV의 게임기로 마케팅에 나서자 삼성전자가 마케팅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MS 게임기와 손을 잡은 것이다.

두 회사는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소니는 81cm(32인치)를 699달러, 46인치 풀HD LCD TV를 1599달러에 선보이는 등 가격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40인치 풀HD LCD TV를 11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두 회사의 게임 마케팅이 국내에서도 전경원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KT 메가폰의 TV 공동 마케팅을 펼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게임기 마케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행까지 내보

- 1) 1970년대 이후로 우리는 일본의 완성품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 JIPA는 1938년에 중앙회(重陽會)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로, 1959년에 일본특허협회란 이름을 거쳐, 1994년에 오늘의 '일본지적재산협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초의 탄생은 9월 9일에 창립했다는 의미의 소규모 모임이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전신이 된 우리나라의 특허협회가 1973년에 창립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창립날짜를 모임의 이름으로 가졌을 만큼의 뚜렷한 규모와 비전이 없었던 당시와는 달리, JIPA는 점점 그 색깔을 '특허와 지적재산'이라는 분야에서 찾게 되었고, 기업 중심의 '특허협회'라는 조직에서 이제는 지적재산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을 포섭한 오늘날의 '일본지적재산협회'로 탄생하게 되었다.

고, 한국·대만·중국 기업들의 기술격차를 줄이며 추격하는 데에 따른 위기감이 바탕이 되었다는 식의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일본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JIPA라는 조직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겪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였다.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 수립 등의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차지하고 볼 때, 이러한 점은 일본의 IP부처 최대 민간 기관인 ‘일본지적재산협회(이하 ‘JIPA’)'의 성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²⁾

JIPA가 기술과 특허를 사업의 기반으로 하는 제조기업들만을 회원으로 하지 않고, 학계와 변리계, 특허정보서비스업체 등을 포섭하면서, 지식재산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성격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IP 연수프로그램의 조직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의 지식을 모으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부터, JIPA의 회원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무렵에서는 1990년대의 10배에 달하는 1,000개사 수준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가운데 회원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단체라면 어떤 것일까? 일년에 우리 돈으로 300~400만원을 가입비와 회비로 납부하고, 특별한 회원혜택이랄 만도 없는 이 JIPA라는 조직이 그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었던 것일까?

지식재산에 관련한 기초부터 탄탄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짜여진 JIPA의 연수프로그램이 우선은 가장 큰 매력이었을 것

표 1. 일본지적재산협회의 전문위원회와 주요 활동 내역

전문위원회	주요활동
특허 제1위원회	3극 대응의 제도의 조화(三極對立) 지식재산 창출 프로세스(출원 및 권리화)에서의 제문제의 검토
특허 제2위원회	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의 항변에 관한 연구(진보성, 보정제한 등) 심결에 관한 연구(취소소송, 판례연구, 심판제도연구 등)
국제 제1위원회	미국 특허소송 관련 연구(KSR최고재판소판결에 의한 CAFC의 비자명성 판단의 변화, 간접침해 동향, 침해소송에서의 공판 후 활동 등) 미국특허법의 개정 동향파악과 분석 브라질의 지적제도와 지적정세
국제 제2위원회	유럽에서의 특허취득, 권리활용상의 유의점 PCT리폼, 3극유저회의 등의 글로벌 특허과제의 검토
국제 제3위원회	중국, 한국, 대만 등에서의 권리취득·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인도 및 아세안 제국에서의 특허제도의 조사연구
바이오 테크놀로지위원회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재산의 권리보호 등 검토 및 제언 일·미·유럽 삼극의 최신 심판결정의 조사·검토 특허청 관련 사항 검토(유전자원 개시 문제 등)
소프트웨어 위원회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권리화에서의 여러 문제의 조사 및 연구(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진보성 및 기재불비 판단의 타당성 검토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해외에서의 보호 범위의 조사 및 제언(중국·유럽·미국의 사례 조사 및 라이선싱 기법 연구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권리행사에 관한 조사, 제언
디지털 콘텐츠 위원회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의 조사·연구 및 제언 네트워크시스템 및 콘텐츠유통에 관한 법률문제의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의 조사·연구 및 제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제1위원회	경영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 활동의 본연의 자세 지식재산부의 인재육성과 캐리어 형성 시스템 기술 유출의 방지에의 기업의 대응(직무노하우 관리·보상, 정보유출의 방지책 등)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제2위원회	그룹 회사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의 본연의 자세(직무발명 대응 등) 기업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지적재산정책 지적재산 활동과 세금(지적재산의 세금 처리 등)
지적재산 정보시스템 위원회	경영에 이바지하는 지적재산 정보시스템의 검토와 제언 - 기업 시스템과의 제휴를 고려한 전자출원시스템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정보시스템 - 지적재산정보시스템의 도입·운영 프로세스 등
지적재산 정보검색 위원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보의 활용 연구와 제언 - 경영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 해석 방법론 연구 - 특허정보검색 DB의 이상적 활용방안 연구 등
라이선스 제1위원회	국내외 라이선스에 관한 법규제 및 전략흐름 조사 연구 게임 이론의 라이선스 계약에의 응용 연구 비밀유지 또는 기술 유출 방지 관련 계약의 조사 연구 등

전문위원회	주요활동
라이선스 제2위원회	안심할 수 있는 기술 거래에 관한 조사 연구 성과 활용을 향한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의 조사 연구 대학 또는 공적 연구기관과 기업의 제휴의 조사 연구 등
의장 위원회	의장권에 근거하는 국내외 엔포스먼트에 관한 조사 연구 중국, 일본 외 아시아제국에서의 법개정에의 대응과 제언
상표 위원회	국내 상표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계 제 기관에의 의견 발신 브랜드 라이선스의 유의점의 검토 해외 상표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계 기관에의 의견 발신 (중국 등 모방품 대응을 포함함에 대한 실무상의 문제의 조사 연구)
Fair Trade 위원회	국내외 부정경업의 조사 연구 - 영업 비밀의 관리 실태의 조사, 연구 - 정보 누설 대책 및 모방품 유출의 문제
회지홍보 위원회	「지재 관리」 「JOURNAL OF JIPA」 등 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홍보활동(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사무국과 제휴하여 지속적 업데이트)
인재육성 위원회	경영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인재육성을 위한 연수의 비전 실행 변혁리더육성 연수회, 지식재산전략스태프 연수회(특별연수) 추진 JIPA의 지식재산 교육 전반에 대한 코스 개편 및 기획정비 등 위원회 간의 횡적 연결기능의 강화
종합기획 위원회	JIPA 활동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제언

이다. 또한 각 강좌마다 일본의 대표기업들의 IP실무로 잔뼈가 굵은 팀장, 부장급의 실무가들이 강사로 선다는 것도 회원사들을 모집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본다. 여기에는 실무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강사들이 법이론적인 혹은 개괄적인 수준의 이야기만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생생한 실무현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강좌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배경에는, JIPA내부적으로도 강사가 자신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에는 다음번 강사섭외에서는 배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식의 소위 보이지 않는 내부 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깔려있다.³⁾

자율적인 학습조직의 운영

‘일본 기업의 IP부서가 IP실무에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제1의 이유 ‘를 자율적인 학습조직에 뿌리를 두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에 두고 싶다. JIPA의 조직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지원 부문으로서 사무국이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위원회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수십 개의 위원회는 20개의 전문위원회와 PJ(Project)⁴⁾라고 하는 정책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프로젝트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위원회가 다루고 있지만, 일본 전체기업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이해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 중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특별히 직무발명 PJ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활동과 JIPA라는 조직 수준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가는 등이 그것이다.

JIPA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근간과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식공유를 넘어 지식의 창출에까지 활동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그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실무학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천에 바탕을 둔 실천전략으로서의 업무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초급자에서 실무자, 관리자로 나아가는 일련의 성장목표를 가진 JIPA의 IP연수

3) JIPA의 지식재산 실무과정이 기업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한 교육이었는데가 하는 사실은 과거 일본에서 계층과 대상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교육을 주로 담당하던 일본발명협회(JIPI)가 기업 실무자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사업영역에서 배제한 바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4) 현재 JIPA에서 운영되고 있는 PJ로는 JIPA 지적재산 심포지움 실행위원회, 직무발명 PJ, 삼국유저회의 PJ, 일중기업연대 PJ, 아시아 전략 PJ, 지재경영지원 PJ, 적정 Enforcement PJ 등이 있다. (<http://www.jipa.or.jp/katsudou/project/index.html>)

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현장에서 이를 적용해보고, 활용하고 있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 득과 실을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로써 실전이전의 IP연수 학습의 내용은 JIPA 회원들에 의해 더욱 날카로운 전략이론으로 변화되고, 이를 다시 일본 기업의 회원들이 학습하고 공유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특허부서원들도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겉을 갈아보면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 사람들이 대의명분보다도 실용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성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 스스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때, 이를 반드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곤 한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기업들을 향해, 특허분쟁의 도화선을 놓은 작지 않은 배경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본도 미국과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쟁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찌면, 강자에게서 잃은 것을 약자에게서 되찾자는 식의 술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적인 분석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나라를 향한 특허분쟁을 준비하고 대응해왔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식의 공유, 확산, 창출을 위한 학습활동

이들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문헌들을 작성해냄으로써, 지식의 공유, 확산, 축적, 발전 등을 통한 지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일부 위원회가 해마다 개정판을 만들고 있는 몇몇 매뉴얼들은 기업의 담당자가 '이 자료가 없으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실무매뉴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외 각국 특허청이나 관계기관에 IP관련 제도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상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국이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배경이론과 환경에 대해 충분히 논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스터디가 되지 않아서는 상대국을 설득은 커녕 논리적인 주장도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분쟁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한다는 점이다. 이미 습득하여 갖춰놓은 분쟁능력에 더하여, 실제로 분쟁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실전 전략을 갖고 닦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인 정보검색능력,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의 발굴 등이 아직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초급단계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이해나 분석 없이는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질 수 없다.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도 나선 사람이 참치를 잡겠다고 지렁이를 미끼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콩치나 정어리를 미끼로 써서 한 마리씩 낚시로 낚아 올리던지, 그물망을 펼쳐 포획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도 자국의 자사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20여 개의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활동분야를 정하여 철저히 학습하는 정치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같을 수는 없다. 같은 수법을 사용할 만큼 우리의 국제환경이나 지식재산 기반이 일본과 같지도 않다. 하지만,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그들을 배우고 탐색함으로써 일본 기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

우리에게도 생존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생존학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처연한 느낌을 준다면, 자기주도 학습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본이 하고 있는 학습활동이 바로 자기주도의 학습이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벌인 생존전략으로서의 학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일컬어 '위기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극복한 사례'라고 명칭하고 싶다. 소위 사활을 걸고 도전해 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앞서 서두에는 일본의 '세계2위 경제대국 방어'라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일본 회복의 긍정적인 의미로 꼽아 보았지만, 이는 일본의 치열한 생존전략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